

사랑하는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캄보디아^{Phnom}의 정지웅/은영 선교사입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어요? 지난 동역서신 이후 시간이 참 빨리 지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소식과 기도제목을 감사한 마음으로 나눕니다.

가르치는 사역_대학



선교사 부부가 함께 가르치고 있는 예술대학 Phnom Penh Int'l Institute of the Arts 은 지난 7 월 첫 학년을 잘 마쳤습니다. 처음 30 명의 입학생은 1 년 사이 그 수가 14 명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아이들은 1 년 사이 그 단단함이 배는 더해졌습니다. 이후 8 월부터 새학년 입학시험을 통해 40 명의 신입생이 들어와, 지난 9 월 8 일 새학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번학기 수업 6 개와 5 명의 전공지도를 맡아, 학생을 만나고 가르치는데 매일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음과 동시에, 시간과 체력, 영성에 더욱 탁월할 수 있도록 이전보다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정선교사는 강의외에도 교무처장으로 대학의 일을 배우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학생을 모집, 선발하고, 1 학년 교양학부와 모든 전공의 4 년 학사 커리큘럼을 만들어가고, 새로운 강사 8 명의 선발하였고, 지난 8 월엔 한국의 두 대학 (제주대학, 연세대학)과 대학간 양해각서^{MOU}를 맺어 저희 학생들의 한국 유학의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중 강사 선발을 위해 수십명을 만나고 인터뷰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것은, 많은 준비된 사람들이 있으나, 때와 필요에 따라 쓰임을 받는 이는 소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땅에 선교사로 있는 것이,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때라는 은혜를 다시한번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영혼을 깨우고 세우는 _교회

올 여름 제자교회 주일예배는 느헤미야 강해설교를 진행하며 휘파된 성읍과도 같았던 이 나라의 참혹했던 크메르루즈의 죄성을 나눴습니다. 이민세대였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참혹함을 자기의 죄와 일로 삼아 (Ownership) 금식과 회개함으로, 안락하고 보장된 삶을 끊고, 이스라엘로 돌아가 하나님의 도시를 다시 일으키는 자(Rebuilder)로 거듭났듯이, 지금 캄보디아의 젊은 세대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어나길 함께 소망합니다.



더불어 지난 주가 캄보디아의 최대 명절 중 하나인 프쭌벤^{Pchum Ben}이었습니다. 귀신이 된 조상이 1 년에 한번 세상으로 나와 7 개의 절을 돌며 후손이 차려준 밥을 먹고 복을 주는 것으로, 미신과 우상 숭배가 가장 센 기간입니다. 대부분 2-3 일은 기본으로 1-2 주를 써, 지극정성으로 절을 찾아 승려를 공양하고 음식을 차리고, 또 돈을 주고 죄와 업보를 씻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모든 선교사들의 마음은 동일할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 애를 써서 예배드리니? 내가 이렇게 한번씩 흔들면 다시 제자리야.'라고 조롱하는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문화라는 옷으로 덮어 용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절이 아니라 교회,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다니엘 설교가 2 주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프썸번의 의미 내용을 조목조목 살피며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옳지 않다는 것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나아가 모두가 사자같은 담대함으로 하나님과 사람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바람과 같이.. 뿌띠어



뿌띠어 Puthea 는 캄보디아 왕립농대 수의과 2 학년 학생입니다. 농경지를 나라의 미래 경쟁력으로 가지고 있는 캄보디아는 결국 '땅과 물'을 잘 가꾸고 개발하는 것으로 21 세기 나라 부강의 길을 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농업은 과학기술도 못지 않게 중요할 것입니다. 뿌띠어가 저희 교회의 다리 사역 ^{Bridge Ministry} 인 토요 영어 강좌 ACE 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학교로 돌아가 반 학생들 여러명에게 전하여, 한 그룹이 교회 문턱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뿌띠어는 주말 수업이 겹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고, 다른 이들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을 교회에 접붙여준 뿌띠어가 참 기특하고 고맙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그를 다시 만나게 하시면 복음을 전해야겠다 다짐합니다. 그를 주님께 접붙여, 이 고마운 마음을 다 갚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일본 DTS 팀과 함께..



지난 7 월 20 일 일본 DTS 훈련팀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은 종종 '선교사님은 왜 미국에서 캄보디아로 오셨어요?' '왜 한국의 가족에게 돌아가지 않아요?'라고 묻곤 하는데, 이날은 이에 더해 '저 일본사람들은 여기에 왜 왔어요?'라고 궁금해합니다. 그들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니, 정말 하나 하나가 궁금하고 이상히 여겨질만 하다 싶었습니다.

훈련팀은 준비해 온 워십댄스, 간증, 스킷드라마로 예배를 더욱 빛내주었습니다. 순간 선교사 마음에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교회가 유명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 마음에 곧 대답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네가 오늘 정말 좋은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저희는 이 날 정말 기쁘게 예배 드렸습니다. 저희는 물론, 훈련생들에게도 성령의 터치하심이 있었던 참 은혜스러운 예배였습니다. 또한 캄보디아어, 영어, 한국어, 그리고 일본어 통역까지 4 개국어가 섞였던 소천국 예배였습니다. 참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좋았어요'

하버드대학 박사님?



하버드대학 박사로 미국의 유명 사립대학의 교수 한분을 소개받아 프놈펜에서 만났습니다. 미국 사람으로, 크메르루즈 이후의 캄보디아를 지난 25년간 연구해 온 저명한 인류학자였습니다. 이번 캄보디아 방문의 목적은 크메르루즈 정권 이후에 태어난 현 젊은 세대를 향한 기독교의 영향에 대해 연구 논문의 자료를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지방의 교회와 기독교 NGO 들을 방문, 인터뷰 하였고, 프놈펜에서는 저희 교회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 박사라는 것만으로도 캄보디아 청년들에게는 그저 선망의 대상이었기에, 그의 방문이 여러면에서 유익을 주리라 기대하였습니다. 예배와 식사 후,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그분이 저희 청년들 소그룹에 참여하고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모두 잘 마치고 헤어졌습니다.

이후 인터뷰를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인터뷰 질문들은 철저히 인문적인 관점이었습니다. 자신을 진정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라 인정한다면,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모든 것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이기적인 것 아니냐는 물음이었습니다. 그가 하버드 박사이기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할지 몰랐다는 형제의 고백을 들으며, 이미 그의 믿음에 흔들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다시 회복하고 말씀으로 견고히 세우는데 이후 많은 기도와 에너지가 들었습니다. 이번일을 통해 저희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댓가를 톡톡히 치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깊은 맛을 찾아가는.. 루어타



루어타^{Ratha} 형제입니다. 그가 처음 교회에 온 것은 한국사람에게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서였습니다. 대학에서 IT 를 전공하고 직장에 다니고 있는 형제인데, 2014년 주제를 '한국'으로 정하였다며, 한국어와 한국 요리를 알아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그런것이 한국어 시간과 식사시간에는 눈이 빛나는데, 예배시간에는 놀랍도록 매번 잘 잡니다. 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런데 이러한 루어타에게는 뭔가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교회에 올 때 콜라를 사와서 나누다던가, 찬양집을 사서 노래 연습을 하고, 또 성경을 읽어오라면 그 다음주에 밑줄을 그어 가져오는 것입니다. 지금 직장이 일은 적고 돈을 많이 버는데, 남을 속이는 일이라 그만둬야겠다고 합니다. 주일 음식이 남아 싸주면, '고맙습니다'하고 가져가 교회 오지 않은 친구집에 가서 주고 갑니다. 생각해보니, 집도 프놈펜 북쪽 끝으로, 교회서 가장 먼 형제입니다. 다른 이들도 루어타를 편히대하고 고마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이 되기도합니다. 그의 섬김에는 기쁨은 있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형제가 계기가 되어 수,토(Wed-Sat) 성경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형제와, 이 형제가 밥을 갖다 준 또다른 믿음이 없는 형제 솔로(Solo), 이 두 사람을 1차 대상으로 하고, 믿음이 단단한 또래 형제 한명을 영적 도우미로 포함시켜 총 3명과 함께 매주 요한복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점심을 먹고, 성경을 읽고 나누는 열린 모임입니다. 한 테이블에 앉아 반은 음식 얘기, 반은 말씀 얘기를 하니, 루어타에게 말씀이 조금씩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길 소원합니다. 섬기고 배풀길 좋아하는 루어타가 많은 이들에게 고마움을 많이 심어주는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자기를 짜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의 조각 선교사



프놈펜에서 한시간 정도 떨어진 지방에 코지 (COSI)라는 싱가포르 선교사님이세운 초중고등학교 학사 사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6 살때 들어간 한 아이였던 쓰러이멧 ^{Sreymich} 이 자라, 19 살 대학생이 되어 프놈펜으로 와 저희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사진). 성격이 참 착한데, 행동은 정말 너무(?) 여유있는 ‘천천히 자매’입니다. 선교지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저희를 향하신 계획이 있으신데, 그것은 이와같이 하나의 조각(piece)로 쓰시는 것이란 생각을 해 봅니다. 한 사람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저희 같은 여러 선교사 조각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에게 보내신 이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고 사랑하여 이제 그들이 주인공으로 드러날 다음(next place)으로 이어주는 것입니다. 기회가 닿으면 코지사역의 유스티렉터를 만나려합니다. 같은 영혼을 두고 함께 즐거운 꿈을 나눌 때, 혹 새로운 동역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기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영혼을 품는 것이 열쇠라 믿습니다. 지난 주 쓰러이멧은 그의 친구 못다엔 ^{Mut Den} 을 데려왔습니다. 땅에 묻힌 썩어있는 보석을 하나씩 발견하는 것 같은 기쁨입니다.

찌보완의 2 라운드



지난 동역서신 15 호에서 나눴던 찌보완은 캄보디아국립기술대학 강사 선발에서 최종 떨어졌습니다. 성적과 시험의 객관적으로 1 순위 대상이었으나, 다른 학생이 다른 방법(?)으로 교수들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찌보완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 주일성수를 신앙의 잣대로 삼아, 예전에 학과가 주말에 스터디그룹을 열때, 하나님이 보상해주심을 믿는다며 교회 예배를 택했던 이였습니다. 이후도 학업에 최선을 다해 이후에도 과수석을 매 학기 해 온 수재이기에, 저희는 이 형제를 다시 캄보디아국립기술대학에 교수로 심어 제자양육의 2 기를 연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찌보완을 만났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번에도 그는 사람을 향해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선교사도 어떻게든 더 좋은 길을 속히 열어주고 싶은 마음 간절한데, 하물며 하나님이시랴 이 형제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의 2 라운드를 기대합니다. (선교사는 찌보완을 사역자 후보생으로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삐싸이의 아름다운 홀로서기



새가족팀 리더를 맞고 있는 삐싸이 ^{Pisey} 자매입니다. 낮에는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하고, 저녁에는 NGO 에서 중국어 선생으로 일하고, 또한 틈틈히 가족 생계인 망고농장의 일도 열심히 돕고 있는, 참 귀한 자매입니다. 하지만, 매일 불교 방송의 염불 소리를 하루종일 듣고 사는 가정, 성인으로 일 안하고 오히려 동생에게 용돈을 타가는 오빠로 인해, 고생하는 엄마 얘기를 하며 눈물짓습니다. 그런 삐싸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믿지 않는 가정에 심으신 믿음의 씨앗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할머니가 방에 혼자 계시면, 그에게 성경 이야기들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참, 그 신앙이 이쁘고 기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주 큰 도전이 왔습니다. 바로, 프썸번으로 가족이 모두

절에 가게 된 것입니다.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를 포함해 집안의 모든 어른과 다 함께 절에 가서 조상신에게 공양하고 죄를 씻는 예식을 치루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뻘사이는 결국 절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가족들의 권유와 재촉에도 결국 절에 들어가지 않고, 그 앞에 홀로 서서 남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저희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동시에 이제부터 그가 수없이 힘겹게 홀로서야 합니다.

이번달 교회의 첫 수련회와 침례식 ^{Baptism} (18-19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일대일로 만나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 교회가 되고, 이제 첫 수련회와 침례식을 가게 되었으니, 너무도 감사하고 기쁜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침례식을 형식으로 본다면 그동안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이후 공인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수준의 결단을 요하고, 이번에 차례가 되었다 여깁니다. 더불어 다음달에는 중보기도모임을 새롭게 시작하고, 12 월에는 4 번째 감빵잠 단기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믿음안에 지혜와 용기를 더하사 이 때에 할 일을 놓치지 않게 하시길, 무엇보다 한 영혼을 더욱 깊이 사랑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데 저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찬양 녹음 하나를 첨부해드립니다. 몇주전 예배시간에 찬양을 부르며, 갑자기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정선교사가 마지막 찬양, '그리스도를 위한 캄보디아', 직전 녹음 버튼을 눌러 남긴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자교회 젊은이들이, 다니엘과 같고 다윗과 같이 일어나, 이 나라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데 귀히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교지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저희의 무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함께 기도해주시는 동역자님께 늘 감사드리며, 그 소중함을 또한 더욱 깨닫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늘 성령님의 은혜가운데 강건하세요.

기도제목:

1. 첫 수련회/침례식(18-19)을 생애 잊지 못한 은혜의 시간으로 허락하시며, 경비(교통. 숙박)가 채워지도록.
2. 찌보완과 뻘사이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시며, 진로와 가정구원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3. 학교와 교회에 맡겨주신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더욱 거룩과 기쁨부음의 탁월함을 주소서
4. 제자교회가 많은 영혼을 깨우는 곳,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세상으로 내 보내는, 영적 산실이 되도록
5. 온유(9) 주언(8)이가 신앙과 지식과 총명이 아름답게 자라며, 어려서 성령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길

2014 년 10 월 3 일
정지웅/은영, 온유, 주언 올림

